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정책현장탐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근래 가공할 만한 가족내 범죄나 폭력양상이 각급 매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자칫 '가족의 위기'까지 거론되기 쉬운 현실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함께 정책적 주문으로 분주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을 만났다. 면담은 2019년 7월 29일 (월) 오후 4시 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실에서 황정 미박사(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중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좌)과 황정미 박사(우)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유형,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족서비스, 가족정책도 과거의 유형화된 접근과는 좀 달라질 필요 ... '가족변화대응본부'를 만들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는 측면들을 빠르게 포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제안과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

황정미 박사(이하 황) ♣ 이사장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에 가족이야기가 많은데요, 범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까지, 아무튼 변화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이 시점에서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로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영 이사장(이하 김) ♣ 가족은 늘 변해왔지요. 그런데 2019년 한국사회에서는, 마치 기술혁신이 고스란히 동시대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변화의 폭이나 속도가 엄청난 것처럼, 가족의 변화에도 그런 점이 있어요. 생존을 규정짓는 노동력 형태가 바뀌면 가족도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럼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거리이지요. 사실 국가가 하는 공공정책은 다수의 욕구와 필요를 사전에 진단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는 대다수의 욕구에 기반하는 유형화된 가족서비스만으로는 현재의 가족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 서비스, 가족 정책도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형태나 삶의 방식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추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2019년 2월에 조직 개편시, 가족현실은 너무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과 같이 몇몇 유형화된 가족 삶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반성적 사고에 기반하여 가족변화대응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변화대응본부는 일단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한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는 측면들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에서부터 한가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은 사회정책이란 큰 틀에서 가족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저희 한가원은 대중의 욕구를 읽어내고 정책 전문가나 담당기관과 교감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새롭게 출현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 같이 정책연구에 기한 실태조사와 그것에 기반한 정책 과제 도출, 혹은 그에 기반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후에 서비스를 집행하는

식은 소요 시간대비 효과성의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보편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은 당연히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사각지대나 일부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기때문입니다.

황 아, 가족의 변화를 좀 더 빨리 포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 그런 시간의 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이나 여러 발간물, 미디어 등을 빨리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들을 여성가족부나 관련 학자들이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빨리 시범사업을 해본다, 이런 구상입니다. 한 예로, 가족변화대응본부에서는 가족편견 모니터링과 함께 홍보나 교육 등의 인식개선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황 가족에 대한 편견을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데요.

김 예를 들면 국제결혼 가족,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희화화되거나 인권편하의 측면은 없는지. 저희가 가족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인식개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변화대응본부는 끊임없이 세간의 이야기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 변화의 방향성이 무엇이다, 가족정책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출산 측면에서 본다면 유자녀 가족을 우선 지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특히 가족을 구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1인가구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혹은 그 지원의 우선성이 과연 유자녀가족과 경쟁적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제도화나 보편적 서비스로 가는 건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될 일들,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빠르게 포착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더해진 거죠. 기존의 정책에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상이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보편화에 좀 멈춰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노력에 더해 빠른 변화를 이런 식으로라도 따라잡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위원의 주된 임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 또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부터 양육비 청구 더 나아가 한부모에 대한 보편적인 상담과 정보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 제공

황 얼마 전부터 가족이 다양해졌으니까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상투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가족변화대응본부라는 이 명칭이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가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나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중 어떤 쪽에 제일 무게를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한가원은 재단법인에서 2015년 특수법인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한가원의 주된 임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가 균질하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들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역종사자들의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하고 있어요. 또한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관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육비 이행 사업이 단순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구요, 자녀양육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 예를 들면 상담부터 양육비 청구, 그리고 더 나아가 한부모에 대한 보편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이 패키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 한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군요.

김 그렇지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등 다양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면접교섭서비스의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와 3자간에 면접교섭을 강화할 필요하고, 이를 위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관련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양육비이행원은 중앙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상담 역량이 잘 갖추어진 지역 센터들을 선정해서, 면접교섭을 원하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 전문 상담사가 있지만 중앙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게 한계로 봐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구 지역에서는 이혼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지역센터 70여군데 센터들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해보는 중입니다.

황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게 해주는 법률적인 지원 외에도, 면접교섭을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김 예.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모든 비양육부모들이 양육비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접

교섭은 비양육비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가나 센터장들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양육비행사업 담당자들과 지역센터들 중에 역량이 있는 곳을 연결해서 이혼 후에 자녀를 키우진 않지만 부모역할을 잘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그럴텐데, 감정적 이혼이 많아요.

황 ㅎ 흔히 이혼하면 원수가 된다고 하죠.

김 ㅎ 그렇죠. 하지만 결혼관계는 해체 돼도 가족관계는 해체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헤어진 것 뿐이지 성장과정에 반드시 부모 노릇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양육비 이행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센터하고 연계해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면접교섭을 하면 양육비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요.

황 ㅎ 면접교섭권은 국제결혼 후 이혼에 이른 가정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요.

김 ㅎ 아시겠지만, 한가원의 중요 사업 중에 다누리콜이 있죠. 1577-1366 서비스는 13개 언어로 이주여성 뿐 아니라 국제결혼한 배우자라면 남녀 모두에게 정보제공부터 위급한 순간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병원에 가거나 경찰, 폭력 문제 등등에 통번역과 함께 동행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황 ㅎ 동행까지 지원하나요?

김 ㅎ 동행지원을 지역에서 하지요. 저희가 6개 지역이 있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방문상담과 긴급쉼터가 구비되어 일시보호의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이나 전문적인 보호시설로 연계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으면 보호해주는 방식이지요. 지역센터의 경우 13개어 서비스 통역이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국의 언어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이나 지역센터의 지원을 통해 바로바로 13개국 통, 번역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3자 통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답니다. 사실은 저도

한가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가족서비스에서 전화 상담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현장에 가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외국어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주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이분들 스스로의 자부심이 높아서 매우 열심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가족상담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배경이 있는 분들의 상담은 물론, 한부모 상담, 양육비 이행 상담, 그리고 9월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의 시작됩니다.

황 가족 상담이 체계적으로 확대되는 거군요.

김 아직 다 충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다누리 대략 120명 가량 가족상담단이라는 이름 하에 임신, 결혼, 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급적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언제라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 센터 관리가 한가원의 첫 번째 기능이라면, 두 번째로는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다음으로는 이주배경의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과 관련된 위기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다양해진 가족삶을 둘러싼 새로운 편견과 부정적 시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하는 인식개선사업들이죠. 저희가 작년에는 '조선에서 왓츠롱'이라는 웹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2019년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공공정책 커뮤니케이션 혁신분야로 은상을 받았어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 국가의 기관 및 개인 비즈니스 분야들이 서로 우위를 다투는 경연속에서 저희의 웹드라마가 다문화인식 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황 웹 드라마요?

김 웹 드라마, 웹툰, 그리고 SNS를 통한 인식개선 및 가족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 성 고정관념, 정상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관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자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정보를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5월 달에는 저희가 친족 호칭에 대한 대안적인 호칭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관련 세미나와 인식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서 우수작에게는 작은 상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황 여성가족부에서도 정책 홍보를 위해서 얼마 전 마녀의 법정이라는 TV드라마를 후원

한 적이 있는데, 한가원에서도 웹 드라마, 가족호칭 공모전 이런 것을 하신 거군요.

김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청소년들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이런 것도 했는데 생각보다 참신한 내용이 많아서 전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작품을 달력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구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황 언론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언론에 가족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사건이나 새로운 현상에 대해 여과없이 너무 흥미위주로, 제목낚시 같은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김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가족 관련 시민운동단체나 작은 소규모 모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가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어요. 저희 기관에는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가족, 청소년미혼모나 한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싶다는 민간 기업들의 문의가 제법 많이 와요. 우리 기관이 당사자이나 관련 조직이나 지역의 지원센터들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의 본업은 아니지만 사업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저희가 필요한 곳에 연계를 해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분야에는 활발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경우, 한부모 단체, 미혼모 단체, 아버지운동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가족관련 단체들은 아무래도 좀더 열악하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하려 해도 조직의 영세성으로 성과를 거둘만한 운동단체로 거듭나기 어려움이 많아요.

황 사업을 하려면 회계 등 여러 가지 실무적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김 예.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선 올해부터 가족관련 단체에서 무료로 자조모임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어요. 단체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마련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민사회 단체들마다 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부모나 미혼모 단체들은 더욱 규모가 적다보니 그들 만의 자체 회비로 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황 이 건물에 장소를 마련하신 거군요.

김 ㉮ 한가원이 있는 조달청 건물 지하 1층의 두 개의 사무실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어요.

황 ㉮ 제가 한가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여쭙었는데, 정말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에 관해 여쭙어 볼게요. 앞에서 면접교섭권 말씀하시면서 약간 언급은 하셨지만, 최근에 이 양육비이행 문제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져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주로 엄마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 이 문제는 우리 가족 문화와도 관련이 있죠. 가부장적 혈연에 집착하고 있지만, 정작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그 자녀를 중심으로 협력적 부모역할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은 개인들이 정서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즉,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의해서 양육비를 집행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나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법에만 호소하려고 하니까 법의 강제적 실행력이 중요한데, 법의 실행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양육비가 개인 간의 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아동 방임이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의무인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먼저 양육비 지급은 공적인 채무이며, 자신과 같등했던 전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로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는 점, 그리고 혼인관계가 깨져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지속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통해 양육비이행을 위한 비(非)양육 부모의 재산과 같은 사적소유권을 얼마나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죠.

황 ㉮ 강제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지요.

김 ㉮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강제성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불안성이 높아져서, 아무리 소송을 해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양육비를 받으려는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저희는 소송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소송을 해도 법이 강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획기적 지원,

예를 들면 국가의 대지급 제도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거죠.

황 대지급과 구상권 청구 문제가 나오지요.

김 저희는 사실 집행기관이다 보니 새로운 제도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제안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지급 문제 등은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실제 검토 되는 것으로 들고는 있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언제 실현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저희기관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만원씩 최장 12개월로 연장되었어요. 물론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죠. 지원 요건은 물론 지원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황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녀양육비를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군요.

김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적 절차가 나름대로 많이 개선됐어요. 저희 기관을 통해 양육비 상담을 받고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이행률이 30%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20년 동안 매월 규칙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자녀가 한 살일 때 이혼했다면, 매우 긴 기간 동안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구요, 또 비양육부모가 오랫동안 아이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거나 혹은 부모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나 아빠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한 두 번 양육비를 보내주고 끊어지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요. 결국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사후적으로 뭔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를 앞으로 눈여겨봐야 하겠지요.

황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 그리고 부모가 이혼 후에도 서로 교류하면서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군요.

김 그래서 저희가 양육비 이행 문제도 이제 대국민 참여를 통해서 SNS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은 사랑입니다”, 이렇게요. 당장은 어려움이 많지만,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이제 한가원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건가센터 사업 중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은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 여쭙 볼게요. 최근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한편으로 돌보미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돌보미 분들의 임금이 너무 낮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김 돌보미 사업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 또 지적에 대해서 저도 심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돌보미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육은 노인 돌봄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 돌봄은 중증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고령노인이 아닌 경우 대체로 의사소통이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월령이 낮은 경우에는 어른과 같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요. 더욱이 요즘 같이 소자녀 사회에서 엄마들의 요구는 자녀성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까다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봉착하게 되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일종의 틈새보육의 하나로 돌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 맡기면 감기가 유행 할 때 아이들이 모두 앓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남보다 일찍 출근해야 할 때 등교 전까지 혼자 남은 아이에 대한 걱정 등 이런 저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요구에 맞춰서 시작된 틈새보육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다면서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보구요. 황박사님 지적처럼 다양한 요구에 비해 보상이 적은 저임금 일자리로 변화하다 보니 공급의 측면에서 질 낮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의 가족센터를 베이스로 해서 몇몇 다양한 기관 등이 개별가정과 아이 돌보미를 매칭해주고 양자의 불만이나 문제의 쟁점이 생기는 것들을 상호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답니다.

황 돌보미 분들과 수요자 분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김 예. 가령 매칭이 이루어졌지만 아이를 맡긴 가정에서는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방심한

다'고 느낀다는 항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젊은 엄마가 나한테 가사도우미 역할을 기대한다'는 등 상호 불만들이 있기도 하죠. 지역센터 종사자들은 이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증와병 노인이 아닌 경우 노인돌봄 과정의 문제는 돌봄 대상인 노인에 의해 문제제기가 가능한데 비해 아동들은 돌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제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좀더 까다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와 아이돌보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노동의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가센터나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열악한 사업구조인 상황이에요. 일종의 별도의 사업으로 주어진다든가 해서 센터의 부담이고, 돌보미 분들은 시간제로 하시는 분부터 전업으로 하시는 분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획일화된 관리 및 보상체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신뢰를 얻어서 믿고 맡기는 고마운 이웃, 혹은 선생님이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도 하지만, 보다 높은 대우와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는 분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돌보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다양해지면서 매칭의 어려움이 커지는가 하면, 상호 불만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부담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비해 실상 돌보미 관리 인력인 센터 직원들조차 일부는 근로자로서의 처우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가원이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관리감독의 기능은 지자체에 위임된 것일 뿐, 한가원은 지역 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담당하는 관리인력을 교육하거나 돌보미 양성교재 개발이라고 한정된 역할만 해온 탓에 적절히 개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거예요.

황 돌보미 교육은 안하셨어요?

김 우선 제도적으로 돌보미는 지자체가 고용하는 형식이다 보니 인력양성의 책임 역시 한가원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하나는, 전국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광역 센터에서 해왔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300가구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지 않는 날, 또는 이용하는 엄마들이 만날 시간이 맞지 않다가 하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가정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면 전화로만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지요.

황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군요.

김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 교육기관이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교육용 표준 교재는 저희가 만들지만,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나 주관 기관에 따라 교육의 질은 지역마다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지금 222개소에서 약 1만 9천명의 아이돌보미 분들이 소속해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도 대규모 집체교육이 됩니다. 보통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대 중반 이후의 연령인데요, 이분들이 8시간씩 3일을 교육 받는데, 그분들의 나이와 여건에 맞는 좀 더 생동감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돌봄은 태도와 역할, 행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수동적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가원에서 바람이 있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 센터의 아이돌보미 관리 인력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메타모니터링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었으면 해요.

황 돌보미 인력의 질이랄까, 이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 인건비를 올리고 이분들의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이 돌봄서비스를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말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죠. 특히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부터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또 국가의 비용을 지원받는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관리를 받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준수하는 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확산해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센터들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성 높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 있어 ... 복합화된 공간에서 열린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황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들이 있는데요, 센터를 잘한 점도 많지만 가령 다가센터 같은 경우 너무 급속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늘어났는데 서비스가 과연 잘 제공되고 있는지,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실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확대는 됐지만 운영비나 인력 면에서 영세했

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 나름의 어떤 교류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뀌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든 북한이탈주민이든 통합적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구요. 이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센터가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가 있고, 지원기관도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 양질의 일자리로서 기능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의 규모는 업무전문성의 기획에 기반한 업무분장은 물론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갈등관리 제도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기관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해 통합방안이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다수, 250여개는 통합센터라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는 있지만, 아직 통합이 안된 센터와 함께 서비스 타겟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황 통합센터로 적절한 규모가 갖추어진다면 내용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 현재 가족지원센터들이 하고 있는 내용, 사업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기존의 교육이나 문화활동은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가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첫번째 질문, 가족이 다양화되고 또 정형화하기가 어려운 데서 서비스 개발이 한계에 부딪치죠. 그래서 결국은 돌봄이 필요한 이자관계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자기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와도 돌봄에 대한 욕구 있고, 또 다문화 가족이든 한부모 가족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돌봄의 욕구가 있는 거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프라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확대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로도 기능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센터들은 굉장히 영세하면서도 국고와 지방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탓에 운영의 측면에서는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교류하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어찌보면 지역센터의 공간이나 운영방식이 개방적이거나 포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SOC 사업과 연동하여 지역센터를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이죠. 서울의 광진구나 청주 등 이미 5개 도시에서 복합화 시설로 가기 위한 절차가 확정되어 추진 중이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통합적인 접근,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이군요.

김 예. 가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혹은 지역센터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공간의 기능을 탈피하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냥 카페가 있는 공간에 우연히 들렸는데 초등학교 아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나 적절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부모 또는 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구태여 여성가족부의 가족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나 지역사회의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 기본시설과 가족 센터의 기능이 결합한, 그래서 공간적인 개방성이 확보된다면 엄마, 아이, 누구라도 찾아와서 머물면서 정보와 교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들이 한부모만을 위한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담 및 교류기회에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부모들의 통합, 사회적 지지관계망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특별한 목적이 없이도 공간에 와서 음악 듣고 있다가 퇴근하는 엄마를 만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병렬되어 있거나 이웃해 있다면 굳이 누가 주인이고 손님을 따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을 대상으로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진 욕구들이 있는 가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들려도 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감의 교류의 장, 예컨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오고, 내가 혼자 이혼해서 자기 돌봄이 필요한 남성들이나 비혼의 20대들은 요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요시 요리를 해서 같이 먹거나 혹은 가져가서 일주일간 반찬으로 먹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까지 건가, 다가 센터들은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열린 공간을 확보하면서, 다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다른 시설이나 기관들과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모색해보는 거죠.

황 복합 공간에서 열린 프로그램을 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김 한가원에서 그렇게 공간이 진화함에 따라서 조금 더 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은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바쁜 일터 중심, 경력 중심의 삶을 살아오는데 그 프로그램 내가 일주일에 두 번 가야한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황 그럼 센터들의 공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필요하겠네요.

김 올해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가원에 가족서비스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 센터들에 대한 실적 관리와 종사자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센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현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센터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는 매우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본원이 실적관리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마음은 좀 바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결합되는 방식, 반드시 가족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혼자나 동반자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 와서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이웃과 소통하면서 지역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탈바꿈해보려는 시도는 중요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훨씬 창의적이고 새로운 상상력이 작동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황 요즘 사회복지 쪽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던데요. 특정 서비스를 특정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김 그렇죠. 복합화 공간을 가보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 용산 구청이 있던 자리에는 건가나 다가 센터는 없지만 육아종합센터가 있고 장난감대여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곳을 찾게 되니, 자연스럽게 부모교육이라는 게 건가센터 없이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가족센터도 이런 방향으로 올해 약 60여개 정도를 목표로 바꿀 예정인 것 같아요.

황 결국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김 그렇지요.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되고, 지자체가 신청하면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한가원을 통해서 하면서 가족센터가 원하는 방향과 조정하는 거죠. 거기서 강조하는 게 다목적 교류와 소통의 공간.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쉬어 가면서 공동육아나눔터에 있는 장난감을 이용하고, 들어와 놀다가 스스로 부모교육을 신청하거나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가원에게 사실 이것은 큰 도전이자 상당한 전환인거 같아요. 이제 진화하는 지역 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황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예산도 매칭하는 거죠?

김 예산도 매칭하는 겁니다. 복합 공간에는 대략 15억 씩 매칭하면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올해는 8월 2일까지 신청이 끝났습니다.

황 한가원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관련 센터장, 실무자 등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실무 인력의 양성이나 전문성, 처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낡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서비스의 균질화라는 틀에서 이제까지 지역 센터 종사자들의 질 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대우가 낮은 편이지만, 저희 인력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보다도 대우가 좀더 낮아요. 서울시라든가 몇몇 지자체 혹은 또 건강다가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단규모가 크고 철학이 분명한 경우에는 복지사 수준을 맞춰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력의 이동이 심합니다.

황 처우가 낮으면 이동도 많아지겠지요.

김 들어오신 분들의 보수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매뉴얼이 개발되거나 하면 설명회를 통해서 그 매뉴얼에 대한 Q&A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노무 이슈가 터지면 노무지원단이 활동을 하는 식인데, 한가원 직원 중에서 양육비 이행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직원 수가 많은 조직이 지역 서비스부입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 컨설팅단을 만들었어요. 저희 인력들이 정말 다종다양한데요,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아이돌보미 특화 사업, 미혼부 미혼모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관이 담당해야 할 교육사업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상이 너무 달라서 체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사자 교육도 사업별 연차별로 다양하고, 국민 대상 직접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교·강사에 대한 교육도 있지요.

황 각각의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른 요구들, 불만이나 개선사항들이 나오면 힘든 점이 많으시겠네요.

김 그런 것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한계를 좀 느끼지요. 어쨌든 이제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지역서비스인력관리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 컨설팅단의 운영 결과를 보고 좀더 체계화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이수자가 10만 명을 넘는 성과목표로 잡고 있어요. 부모교육도 마찬가지구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초급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중급 이상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1박 2일의 집체 교육으로 하고 있구요. 또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방문교육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그동안 사업부서도 다르고 다 나뉘어져 있던 걸 기능적으로 모아 교육컨설팅단을 설치운영하니 내년쯤이면 좀더 명확한 교육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출산, 만혼화, 비혼 증가, 중산층 가족의 위기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미래에서 혈연이나 혼인, 섹슈얼한 친밀성이 없더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그 부담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는 가장 핫한 문제. 정책적으로는 결국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잡아줄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돌봄의 부담이나 책임을 지역사회의 가족지원센터가 나누어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황 그렇군요. 다문화 쪽을 보더라도 방문교사 분들이 초기에는 인권지킴이 역할도 많이 하셨구요, 아무튼 다양한 인력들이 일선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서는 가족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신 학자이자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저출산, 만혼화, 비혼 증가, 중산층 가족의 위기 등 한국 가족이 정말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한국 가족의 미래에서 가장 주목할 요인은 무엇인지 이사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 전문가라고 말하면 부끄럽고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보직자들과 한참 토론을 했어요. 가족의 가치가 뭘까? 예를 들어서 가족의 가치가 계속 변하는데 가족의 정의를 꼭 내려야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2차 관계, 특히 돌봄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 사회를 위해서 다 투여하고 이제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지는 노인인구의 문제, 아니면 앞으로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새로운 노동자로서 우리가 돌봐줘야 할 아동청소년 인구나 이들의 돌봄자로서 사회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돌봄노동이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갖지 않는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반드시 혈연이나 혼인, 섹슈얼한 친밀성이 없더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함께 나눌 건가가 가장 핫한 문제이죠. 아울러서 그러면 그 돌봄의 부담을 개인이 혹은 국가가 다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고 지역의 책임이 있고 개인의 책임인데 개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감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까? 정책적으로는 결국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돌봐야 된다면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잡아줄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의 공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분담하거나 그걸 공유하려는 관심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엮어내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 중의 하나가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할텐데요, 앞으로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황 오늘 정말 철학적인 얘기부터 아주 실무적인 얘기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 가족이 급속하게 바뀐다면 가족 서비스도 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하겠지요. 어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가원의 여러 가지 사업과 새로운 시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기록 : 김하빈 프리랜서

- 정리 : 황정미 박사/KWDI 실무진